

‘최저가 경쟁’ 샴푸·린스 등 6개 품목, 전통시장 가장 저렴

백화점 비해 19.4% 낮아

최근 최저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샴푸, 린스, 커피믹스, 참치캔, 여성용품, 분유 등 6개 품목의 장바구니 가격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3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6개 상품의 장바구니 가격은 전통시장이 백화점에 비해 약 19.4% 가장 낮았다.

전통시장의 장바구니 가격은 6만

4886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마트(7만1419원) ▲기업형 슈퍼마켓(SSM·7만5573원) ▲백화점(7만7506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샴푸는 유통업종별 가격차가 가장 컸다. 미장센 펠사이닝 모이스처 샴푸의 경우 전통시장 가격은 4792원 수준이었지만 백화점(1만2813원), 대형마트(1만6133원), SSM(1만500원) 등은 2배 이상 비쌌다.

린스(미장센 펠사이닝 모이스처 린스) 역시 전통시장(5347원)과 백화점(1만2813원), 대형마트(1만478원), SSM(1만500원) 등의 가격차가 2배 이상 나뉘었다.

또 커피믹스(맥스웰 하우스 오리지널, 참치캔(동원잡치 라이트 스탠더드), 분유(애슐루트 명작 1단계) 등의 제품은 대형마트가, 여성용품(위스퍼 리프라이 클린케어)은 백화점이 최저가를 기록했다.

한편 3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보면 배추(19.7%), 핸드로션(10.3%), 된장(9.3%), 양파(8.9%), 부침가루(6.5%), 맛살(5.4%) 등의 가격이 전월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면용비누(-11.3%), 순세정제(-7.1%), 분유(-5.6%), 생선통조림(-4.2%), 설탕(-3.8%) 등의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 /이성주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1일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 회원과 나눔 장터를 진행했다.

전주롯데백, 알뜰맘 카페 회원과 나눔 장터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11일 9층 옥상공원에서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 회원 1,000여명과 함께 나눔 장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헌 물건에 새생명을, 나눔으로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전주&전북 알뜰맘 회원들은 천으로 만든 기저귀 대어, 쌀

과자, 천연모기 퇴치제, 전통식혜 손수건, 앞치마, 토시, 핸드메이드 수제 쿠키, 천연비누, 액세서리 등을 선보였다. 또 집에서 사용하던 중고 제품 중 아기옷, 신발, 가방, 인형 장난감, 손수건, 이불 등 3,000여점 이상을 진열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신광영 기자

전북경진원, 스타소상공인 모집 18일~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경제통상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사례 확산과 롤모델 개발을 위한 스타 소상공인 선발 육성사업 신청자료를 오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모집한다.

스타소상공인 선발육성 사업은 지역 내 가능성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을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 성공모델로 육성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성공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업체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PPT발표를 거쳐 8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4차 공개오디션 등을 통해 최종 3개 업체를 선발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현재 전북 소재 소상공업체이며 창업 1년 이상이다.

선정된 업체는 경영지원금(최대2,000만원), 컨설팅, TV홍보, 저리자금(최대3,000만원)이 지원된다.

스타소상공인 신청 접수는 홈페이지(www.bsos.or.kr)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및 우편(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소상공인희망센터) 또는 이메일(westhope@jb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팀 (063-717-1302)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스타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성공창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영개선 마인드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중기청, 스마트창업터 주관기관 내달 5일까지 공모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일택)은 스마트창업터 주관기관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 창업터는 창의성과 창업의지가 뛰어난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현장중심의 실천체형형 창업교육, 사업아이템의 시장검증,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원광대학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게임과학고 등이 운영 주관기관이었다.

신규 스마트창업터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실천형 린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역량 및 제반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이면 가능하다.

특히 독립된 보유공간과 공동사용 가능한 네트워킹 공간 전문인력 확보, 정부지원금 10%이상 대응투자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현황 전북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63-210-6413)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하림, ‘동물복지 토종닭 백숙’ 출시

13일부터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한정수량 선보여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웅)은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닭의 자연습성을 그대로 살려 키운 ‘동물복지 토종닭 백숙’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4월 13일부터 한정수량으로 기획 판매되는 본 제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복지 지정 농장에서 사육하고, 동물복지 지정운송차량

및 도축장을 통해 운송 및 도축한 축산물에 표시하는 제도. 이로써 하림은 친환경,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더불어 생산(농장)과 운반, 도제까지 전 과정을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해 먹거리 선택에 까다로운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제품을 선보이게 된 것.

특히 하림 ‘동물복지 토종닭 백숙’으로 사용되는 닭을 단독 생산하는 축산농장인 안성 그린팜농업회사 법인유한회사 에이치비씨)는 작년 9월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토종닭 인증을 받은 곳이다. 안성 그



하림은 일반축산 농장보다 최소 8시간 이상 연속 소등해 자연적 생리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체결

군산시는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공장장 주선태)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간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 급식봉사, 소외계층 아이들과의 나들이, 월명산 나무심기 활동, 김장김치 담그기, 연탄나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시는 11일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銀장학재단, 진로체험 참가학생 모집

내달 4일까지 선착순으로

11일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오는 5월21일과 6월18일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JB창의적 진로체험’ 참가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JB창의적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도내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꿈과 끼를 찾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자신의 직업적성 분야 탐색, 현장에서 직업체험, 진로설계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등

으로 실시된다.

참여는 도내 중·고등학생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co.kr)와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카페(cafe.daum.net/jbankwkdjg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jb0936@jb.c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5월4일까지 중·고등학생 각 20명씩 선착순으로 하며, 자세한 문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250-7154/7496로 하면 된다. /정영수기자

신보, ‘광주은행 협약보험’ 출시

중기 매출채권보험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11일 광주은행과 매출채권보험과 대출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은행 협약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보험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보가 광주은행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료도 10% 할인한다. 또한 광주은행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자금대출 이용 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

처에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보가 보장해주는 공적보험제이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부도나도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연쇄부도확률이 낮아진다.

심현구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최근 수출 부진 심화 내수경기 둔화 등 대내·외 악재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광주 및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힘이 되고자 본 협약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이용과 자금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세계 최고 권위 미술랭 그린가이드에서 별 3개(★★★) 만점

봄에도 눈꽃을 볼수 있는 마이산 뱃꽃길로 놀러 오세요!!!